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96호 HYUNBULNEWS.COM 2026년 10월 7일(음력 8월 27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조계종은 10월 1일 서울 조계사에서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참석대중이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 "한국불교 새 백년 도약"

10월 1일, 서울 조계사 앞마당서
5000여 사부대중 참석해 축하
네팔·사노위에 자비나눔 실천

선명상, '국민 마음운동' 확산 선언
청정 승가 구현 · 교구 소통 약속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안정에서 도약으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백년을 열겠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세상 속으로 펼쳐 국민의 마음에는 평안을, 우리 사회에는 화합을, 온 세계에는 자비와 평화가 가득하도록 모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0월 1일 서울 조계사 앞마당에서 5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취임법회를 열고 '한국불교의 새 도약'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제37대 총무원장에 이어 연임된 진우 스님은 지난 4년간 쌓은 종단 안정과 화합을 바탕으로 시대 변화를 이끌며 한국불교의 새로운 백년을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진우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공의로 묻고, 공감으로 하나 되며, 공심으로 실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스님은 "제38대 총무원장 소임을 다시 맡으며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지난 4년이 종단 안정과 새로운 변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그 토대 위에서 한국불교의 새로운 백년을 향해 힘차게 도약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대 변화 속에서 불교의 역할을 강조했다. 세상이 편리하고 풍요로워지면서 인류는 거대한 문명의 전환점에 서 있지만 불안과 외로움, 갈등과 계층 간 대립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진우 스님은 이 같은 시대의 해법으로 '마음의 평안'을 꼽으며 '선명상'을 국민 마음운동으로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스님은 "몸의 건강을 위해 매일 운동하듯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도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며 "제38대 집행부는 누구나 일상에서 자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선명상을 국민의 마음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지면 가정이 평안해지고 사회의 극단적인 대립도 줄고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며 함께 살아갈 힘도 커진다"며 "마음의 평화가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시대, 조계종이 그 길에 앞장서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는 불국정토를 이루기 위한 자비 실천 역시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우리가 오늘 누리는 것은 오직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부모와 이웃, 사회와 국가, 수많은 인연의 도움으로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며 "가진 것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사회에 회향하는 것은 자비를 실천하는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길"이라고 역설했다.

수행자가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는 승가를 만드는 데도 힘 쏟는다. 출가에서 교육과 수행, 전법과 복지, 열반에 이르기까지 종단이 책임지는 체계를 갖춰 수행자의 삶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진우 스님은 "한 분 한 분의 수행자가 세상의 등불이 되고, 국민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청정승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종단 내부적으로는 교구와의 소통을 넓히고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와 불합리한 관행은 과감하게 개혁한다.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진우 스님은 "불교문화유산은 우리 민족의 역사이며 대한민국의 문화이고,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인류의 자산"이라며 전통사찰과 문화유산, 사찰림과 수행문화를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선명상을 비롯한 한국불교의 정신문화가 세계인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진우 스님은 "이제 한국불교는 산문 안에 머무르는 불교가 아니라 세상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는 불교, 국민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불교, 어려운 이웃의 손을 먼저 잡는 불교, 인류에게 새로운 정신문명의 길을 제시하는 불교가 돼야 한다"며 "저부터 낮은 자리에서 듣고, 해야 할 일에 물러서지 않겠다. 그 길에 사부대중 여러분도 함께해달라"고 전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대홍수로 아픔을 겪고 있는 네팔의 조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니르말 프라사드 바타라이 주한 네팔 대사대리에게 10만달러(약 1억3623만원)를 전달했다. 또 사회적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연대활동을 이어온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지몽 스님에게도 1억원을 지원하며 자비나눔을 몸소 실천해 취임의 의미를 더했다.

2면에 계속

제19대 종회 후보 114명

중앙선관위, 10월 1일 자격심사
8개 본사 무투표…사실상 당선
10월 15일 전국 교구본사 선거

조계종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낸 117명 중 114명이 자격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8개 교구본사는 선출 정원과 후보자 수가 같아 경선 없이 무투표 당선이 사실상 결정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태성 스님)는 10월 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438차 회의를 열고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선거에는 전국 24개 교구에서 51명을 선출하는 직선직 중앙종회의원 후보로 84명이 등록했다. 20명을 선출하는 직능대표에 23명, 10명을 선출하는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에는 10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신원조회결과 등을 토대로 후보자격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해인사 교구에 출마한 진우 스님은 현재 공권정지 징계 중이고 미등록 사설사암 운영 사실이 확인돼 후보 자격을 얻지 못했다. 통도사 교구 보각 스님은 2025년도 분담금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서 후보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다.

직능대표 후보자 심사에서는 복지 분야에 등록했던 불갑사 덕상 스님이 후보를 사퇴했고, 나머지 22명 전원은 자격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돼 후보로 등록한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10명도 모두 자격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직선직 82명, 직능대표 22명, 비구니 10명 등 총 114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와 함께 8개 교구본사 후보자는 무투표 당선이 사실상 결정됐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10월 8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인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직선직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10월 15일 전국 교구본사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후보자 명단 2면〉

임은호 기자

